

花卉農業의 現況과 育成方案

姜 洙 基
責任研究員, 農業流通研究室

- I. 머리말
- II. 花卉農業의 現況
- III. 花卉農業의 問題點
- IV. 花卉農業의 育成方案

I. 머리말

花卉란 인간이 觀賞을 목적으로 가꾸는 植物을 말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인간의 情緒涵養, 특히 급속한 都市化와 産業化 과정에서 점증하는 社會的 葛藤의 경감과 融化的 도모, 人間住居 環境의 조화와 美觀의 향상 등을 가져온다. 또한 이와 같은 情緒的, 美的 측면 이외에도 花卉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重要性을 갖고 있다.

첫째, 農家의 주요 所得源으로서의 可能性이다. 國民經濟가 발전하여 衣食住 해결의 단계를 넘어서면 美的인 追求와 보다 쾌적한 生活環境을 가꾸려는 관심이 증대되는바, 이의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서 花卉의 需要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실제 우리 나라에 있어서 花卉栽培 面積은 1971년의 543ha에서 1981년에는 1,239ha로 약 2배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중

生産額은 22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거의 10배가 늘어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花卉에 대한 需要가 대폭 신장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맞이하게 될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行事와 관련된 需要 이외에도 國土空間의 美化를 위한 수요, 그리고 花卉에 대한 國民認識 변화의 가속화 등으로 花卉 需要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花卉는 他作物에 비하여 收益性이 높는데, 農水産部의 최근 資料에 의하면 나팔나리는 段步當 純收益이 619천원, 球根아이리스는 958천원, 溫室카네이션은 3,098천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花卉는 市場과 價格만 적절히 보장 된다면 農家所得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農業이다.

둘째, 輸出을 통한 外貨獲得이다. 1981년 중 우리 나라는 日本, 사우디, 美國, 西獨 등에 약 2.6백만 달러에 달하는 花卉 輸出實績을 기록했다. 우리 나라의 花卉農業이 아직은 幼兒期에 있어 輸出量은 많지 않으나 나리類, 수선, 장미類, 난類, 花木類 등 450여 종이 國際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 輸出展望은 매우 좋으며 外貨稼得率이 他産業에 비해 높아

花卉는 外貨獲得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作物이다.

세째, 耕地의 效率的 利用이다. 花卉類는 各 氣象帶에 걸쳐 特性에 따라 분포되어 있고, 酷寒期 2毛作 不可能 地域, 高冷地, 乾燥地, 濕地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溫室栽培 등을 통하여 耕地 利用의 效率化와 高度化를 달성할 수 있다.

네째, 虛弱勞動力의 효과적 활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靑壯年層의 大量離農으로 勞動力이 老齡化 婦女化되고 있다. 그러나 花卉産業에 있어서는 觀賞樹 가운데 일부 品種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힘든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약한 勞動力의 活用이 대단히 유리하다.

다섯째, 他産業分野에 대한 波及效果가 크다. 花卉産業이 확대되면 그에 필요한 作業機具 및 機械 등 生産機械類, 비닐, 유리, 시멘트, 鐵骨 등 施設資材, 비료, 농약, 호르몬劑 등의 投入 財產業 등이 활발해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花卉의 試驗研究事業이 발전하고 수송, 포장, 판매, 容器製造 등 花卉流通 關聯産業의 발달이 촉진되며, 그에 따른 고용의 增加와 附帶 서어비스業이 발달되는 등 花卉農業 관련 분야에 대한 波及效果가 매우 크다.

또한 이상 열거한 內容 이외에도 農閑期의 農業勞動力 활용, 都市近郊 遊休勞動力 흡수, 外國과의 交流促進 등 여러 가지 면에서 花卉農業의 重要性和 意義는 대단히 크다.

이상과 같은 諸觀點에 비추어 볼 때 現時點에서 花卉農業의 육성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花卉農業의 現況과 당면한 問題點을 살펴보고 花卉農業의 育成方案을 제시하였다.

附加하여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本研究에 있어서 資料上的 많은 制約이 있었다는 점이다.

花卉農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이며, 그 이전에는 栽培面積이나 施設이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需要量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花卉는 관심도 적었고 經濟的인 重要性도 대단치 않았기 때문에 基礎統計資料가 全無하다시피 하고 調查研究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研究은 주로 政府의 花卉農業 育成施策, 花卉關聯團體의 간행물과 團體幹部의 訪問面談, 그리고 현재 農經研 流通研究室에서 수행하고 있는 「全國 園農水產物 流通改善 基本計劃樹立에 관한 研究」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地方出張 中の 商人 調查, 서울 近郊의 花卉園地와 꽃市場 방문 등을 토대로 조사, 연구되었다.

Ⅱ. 花卉農業의 現況

1. 歷史的 背景

歷史적으로 볼 때 인간에 의한 花卉 가꾸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불명확하나, 西洋에서는 古代文明의 發祥과 더불어 시작되어 초기에는 宮殿 또는 神殿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東洋에서는 中國의 수나라 시대에 시작되어 唐宋 시대에 栽培가 성행하였고 특히 黃河流域에서 발전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花卉 加꾸기의 起源은 三國時代였는데, 三國 중에서도 百濟가 宮中園藝로 花卉를 맨 먼저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菊花 5개 品種이 日本에 전래되었으며, 고구려, 신라에 영향을 주어 신라 때는 宮中에 많은 花卉類가 심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어 고려시대에는 貴族과 부잣집들에 각종 庭園樹와 花卉類가 가꾸어졌고, 忠肅王(1314~1339) 때는 元나라로부터 牧丹, 山茶, 瑞香花

葡萄 등이 도입되게 되었다.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花木, 花草 등의 栽培와 감상이 盛行했고 李太祖는 掌苑署(高宗 19년에 폐지)라는 部署를 설치하여 花草類와 庭園樹木 植栽, 接木의 지도 및 감독, 果木 및 桑木數의 計上, 置簿를 맡게 하였다고 한다.

日帝時代에는 日本人들이 그들의 花卉類를 朝鮮에 반입하여 서울, 부산 등 大都市에서 營利栽培를 시작하였다. 解放 후 1950년대에는 西洋 및 日本의 花卉類가 우리 나라에 많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花卉가 農業으로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2. 生 産

우리 나라의 花卉 主產地로는 서울 근교, 慶南의 金海, 馬山 一圓, 濟州道 지역, 全南의 光山과 順天, 京畿道の 高陽郡 일대, 忠淸道の 서산, 당진 그리고 仁川 近郊 등이 우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花卉栽培農家數는 1981년 현재 3,000여 호로서 1979년 對比 약 2배의 증가를 보였다(表 1). 業態別 構成을 보면 專業農家の 비중이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는데 花卉農業이 점차 專門化되어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栽培農家の 經營規模分布에 있어서는 1981년의 경우 총 3,093호 가운데서 1단보 이하가 1,346호로서 전체 花卉農家の 44%, 2단보 이하가

表 1 花卉栽培農家戶數

單位：戶

형태별		연도별	1971	1975	1979	1980	1981
栽培農家	專業		1,007	947	907	1,399	1,683
	副業		779	1,499	1,274	1,334	1,410
	計		1,786	2,446	2,181	2,733	3,093
	專業率(%)		56.3	38.7	41.5	51.1	54.4

資料：農水産部, 「花卉便覽」, 1982.

表 2 花卉 經營規模別 農家戶數, 1981

經營규모	100坪以下	101~300坪	301~600坪	601~4,800坪	4,801坪以上	計
農家戶數(戶)	570	776	750	860	137	3,093
構成比(%)	19	25	24	28	4	100

資料：上掲書.

2,096호인 68%로서 經營規模가 대체로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表 2). 그러나 4,801坪 이상의 農家數도 전체의 4%에 해당하는 137호나 되어 經營이 대규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花卉栽培 總面積은 1971년 이후 1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栽培形態에 있어서는 露地栽培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溫室率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表 3). 이는 花卉栽培 技術이 單純粗放의인 方法에서 점차로 탈피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보인다. 戶當栽培面積을 보면 1981년 현재 약 4단보로 戶當栽培規模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栽培農家の 新規參與가 늘었던 것에 기인한다.

花卉의 生産은 1981년 중 金額으로 약 200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10배의 增加를 보였다(表 4). 1981년의 生産량이 1980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된 것은 1980년 하반기에 시작된 의례준칙 간소화의 強力한 施行과 1981년의 졸업과 입학철의 꽃사용의 自制권장, 꽃꽂이 私設學院의 통제 등에 따라 需要가 대폭 줄어들었던 것에 主要因이 있었다.

종류에 따른 金額比重을 보면 單價가 높은 觀賞樹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

表 3 年度別 花卉栽培面積 變動趨勢

單位：ha

형태별		연도별	1971	1975	1979	1980	1981
栽培面積	露地		469	979	1,087	1,100	1,014
	溫室		74	91	98	180	225
	計		543	1,070	1,185	1,280	1,239
	溫室率(%)		13.6	8.5	8.3	14.0	18.1

資料：上掲書.

表 4 年度別 花卉 生産實績

금액 단위: 百萬元

연도별 유별	1971		1975		1979		1980		1981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切花(千本)	48,031	395 (17.8)	26,698	390 (5.8)	46,674	2,061 (17.5)	329,186	3,469 (16.3)	57,026	3,494 (17.5)
盆花(千本)	739	98 (4.5)	969	277 (4.1)	1,271	722 (6.2)	82,203	3,338 (15.7)	81,818	1,524 (7.7)
球根(千球)	521	9 (0.4)	409	20 (0.3)	780	37 (0.3)	1,330	192 (0.9)	1,116	177 (0.9)
花木(千株)	4,113	340 (15.4)	8,040	529 (7.9)	2,398	923 (7.9)	104,399	1,788 (9.4)	2,460	1,746 (8.7)
觀賞樹(千株)	9,371	1,364 (61.8)	17,779	5,466 (81.4)	11,451	7,972 (67.7)	35,606	12,471 (58.6)	9,661	12,996 (65.0)
種子(千ℓ)	60	1 (0.1)	184	34 (0.5)	230	47 (0.4)	77	19 (0.1)	47	31 (0.2)
計		2,207 (100.0)		6,716 (100.0)		11,764 (100.0)		21,277 (100.0)		19,968 (100.0)

資料: 上掲書.

음이 切花, 花木, 盆花의 순이었다.

花卉의 收益性에 關係 조사된 資料는 많지 않으나 다만 머리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81년 農村振興廳 園藝試驗場의 일부 品目에 對한 研究 推定資料에 의하면 나팔나리, 球根아이리스, 溫室카네이션이 각각 600천 원, 900천 원, 3,000천 원의 단보당 純收益을 나타내어 他農産物에 비하여 生産農家에게 높은 所得을 提供하고 있다.

3. 需 要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花卉需要 實態에 關하여 조사된 資料가 없기 때문에 農水産部의 生産, 輸出, 輸入統計資料를 利用하여 國內 花卉需要를 推定하였다. 먼저 生産된 花卉가 전부 거래되었다는 가정하에 生産額에서 輸出額을 減하고 여기에다 輸入額을 合算하였다(表 5). 花卉의 總需要는 1981년 현재 약 200억 원 규모이며, 類別로는 역시 單價가 높은 觀賞樹의 金額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切花, 花木, 盆花 등의 순이었다. 1981년의 수요가 前년에 比해 減소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政府의 의례준칙 簡素化의 적극적인 시행에 連유한다.

表 5 年度別 花卉 需要現況

단위: 百萬元

형태별	연도별	1977	1978	1979	1980	1981
切花, 切葉		295	870	1,213	1,820	1,776
盆花		374	411	722	3,338	1,524
球根		26	29	106	402	420
花木		1,095	1,115	923	1,788	1,746
觀賞樹		10,648	7,344	7,972	12,471	12,996
種子		17	40	128	171	194
其他		—	—	—	156	941
計		12,455	9,809	11,064	20,146	19,597

資料: 農水産部의 生産, 輸出, 輸入資料에 근거해서 作成하였음.

國內需要가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花卉類가 있는데 種子用에서 팬지, 실비아, 페추니아 등 5개 주요 품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백합, 아이리스 등 球根類, 그리고 관음죽, 소철, 난 등의 苗木類이다.

花卉의 주요 需要處는 일반 가정, 官公署, 營業場, 대규모 造景 공사장, 種苗會社, 꽃꽂이 모임 등으로서 일반 가정과 꽃꽂이 모임은 주로 切花, 切葉類를, 官公署, 營業場은 盆花類를, 造景工事에는 觀賞樹를 그리고 種苗會社에서는 種子와 種苗 등을 수요하고 있다.

주요 用途로는 入學, 卒業, 結婚, 喪 등 慶弔 事用, 造景用, 生産用, 家庭用, 사무실의 觀賞

결장식용, 그리고 행사의 裝飾用 등이다.

時期別 花卉需要는 일반적으로 卒業과 入學철인 2월 하순과 植木철인 3~4월, 그리고 꽃과 푸르름이 지기 시작하고 국화가 출하되는 가을이 盛需期이며, 여름철이 非需期이다. 겨울에는 聖誕節과 年末年始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4. 流 通

花卉의 流通은 類別로 차이가 있는데 本稿에서 流通量이 많고 거래가 가장 빈번한 切花와 盆花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花卉의 生産은 대체로 都市近郊에 위치한 主産地에서, 그리고 消費는 大都市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生産者와 消費者를 연결시키는 流通組織은 주로 大都市의 消費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中間流通組織으로는 中間都賣商, 産地直販場, 小賣商, 行商 또는 露店商 등이 있고 流通經路는 5개 정도이다.

먼저 切花의 流通經路를 살펴보기로 한다. 切花生産者는 생산된 切花를 보통 中間 도매상이나 産地直販場에 출하하거나 더러는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중간 도매상은 서울, 釜山, 大邱 등의 대도시에서 집중적인 꽃市場을 형성하고 都小賣를 겸하고 있다. 특히 서울 去來生産者는 이들 中間都賣商으로부터 보통 500만원~1,500만원 정도의 先貸資金을 차입하고 있어 資金을 제공한 都賣商에게 출하하여 위탁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때 委託手數料는 우리 나라 꽃市場의 代名詞로 불리고 있는 서울 南大門 대도 꽃市場의 경우 형식상 15~2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40%에 이르고 있어 出荷主人 生産者와 委託商 사이에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都賣市場까지의 輸送費, 팔지 못하여 버리게 되는

폐기량도 전부 생산자 부담으로 하고 있어 生産者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간 도매상에 도착한 切花는 小賣商→消費者, 露店商 또는 行商→消費者, 그리고 꽃꽂이 모임이나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

産地直販場에 출하된 切花는 보다 많은 利潤을 원하는 小賣商이나 行商들이 찾아와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切花는 出荷量의 60%가 中間都賣商을, 35%가 産地直販場을 그리고 나머지 5%가 곧바로 小賣商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盆花流通에 있어서 生産者는 中間都賣商 또는 産地直販場에 출하하거나 小賣商, 行商, 消費者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中間都賣商을 거친 盆花는 小賣商 또는 行商을 거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

産地直販場에 출하된 盆花는 소매상 또는 행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

지금까지 설명된 花卉의 流通組織 및 流通經路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한편 花卉流通組織의 數를 보면 1982년 9월 현지 切花에 있어서는 中間都賣市場이 서울 4개소, 釜山 1개소, 大邱 1個所이며 産地直販場은 釜山 3개소, 大邱, 馬山이 각 1개소이다. 盆花의 경우에는 中間 都賣市場이 서울, 釜山이 각 2개소이며 産地直販場은 서울 3개소, 釜山 2개소, 大邱 1개소이다. 花卉小賣商은 전기한 時點을 기준으로 전국에 약 4,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²

전국의 주요 花卉市場 現況을 보면 <表 6>과 같다. 이 가운데 施設 및 商人의 수효 등에 있

¹ 韓國花卉協會, 花卉協會報, 1982, 3

² 農水産部, 「花卉便覽」, 1982.

그림 1 花卉의 流通組織 및 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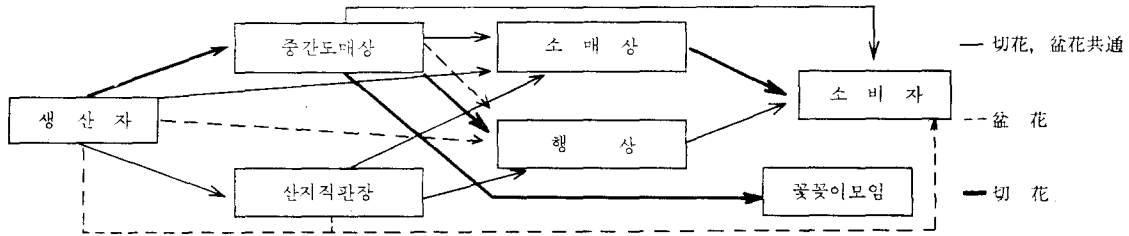


表 6 全國 主要 花卉市場 現況

시	장 명	판매방법	시장면적(평)	주요 취급품목	상인수	비 고
서울	남대문대도꽃시장	도·소매	1,000	절화, 분화, 초화	250	절화 위탁판매
	남문꽃상가	도·소매	380	절화, 분재, 난	50	
	새마을상가	소매	50	절화, 분재	12	
	서초동꽃마을	도·소매	도로변 4km	분화, 초화	200	
	우면공판장	직매	100	분화	—	
	천호공판장	직매	100	분화	—	
	한산지하상가	도·소매	800	절화, 분화	80	
부산	창신꽃시장	도·소매	100	절화, 분재	14	
	강동공판장	직매	100	절화	—	
	석대공판장	직매	100	분화	—	
	남산동공판장	직매	50	절화, 분화	—	
대구	동대구꽃시장	도매	100	절화	8	
	칠성시장	직매	500	절화, 분화	54	
마산	단협공판장	직매	50	절화	—	
김해	호선대공판장	직매	100	절화	—	

資料：農水産部, 「花卉便覽」, 1982.

어 규모가 큰 市場은 서울 南大門의 대도 꽃市場, 서초동 꽃마을, 江南高速버스 정거장옆 地下商街에 있는 한산 지하상가 꽃시장 등이다. 이 가운데 1968년 이후 15년 동안 서울에서 花卉市場의 중심이었던 南大門 대도 꽃시장은 시설이 협소하여 금년5월 중 한산지하상가 부근인 「코벤트 스토아」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의 花卉市場은 15개소 정도인데 비하여 日本은 1980년 현재 약 200개소로서 人口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日本의 1/4수준에 있다. 花卉去來에 있어서 특기할 것을 靑果物의 경우와는 달리 都賣段階에서 競賣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委託販賣나 直賣가 지배적이라는 점일 것이다.

花卉類의 段階別 流通마진에 관해서는 자세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地方 中小都市의 小賣商을 면접 조사한 결과 盆花 및 切花는 종류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收益, 費用을 포함한 총마진이 보통 60%~80%에서 최고 120%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花卉의 等級은 대체로 별다른 구분이 없으며, 切花에 있어서는 꽃송이의 크기, 신선도 등에 따라 上中下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運搬時 包裝은 切花의 경우에 주로 시행되는데 꽃묶음을 新聞紙로 싸서 다시 椀판지 상자에 포장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小賣商에서 消費者에게 판매할 때는 이 이외에도 셀로판 종이나 白紙 등을 사용하여 포장해 주기도 한다.

表 7 花卉價格의 季節指數(카네이션)

단위 : 원/20송이

종별	월별	1980. 7	8	9	10	11	12	1981. 1	2	3	4	5	6	計
백색(가격)		400	700	400	450	1,300	1,800	1,500	2,500	1,000	1,000	300	—	—
청곡(가격)		700	400	300	450	1,300	1,800	1,700	2,500	1,000	1,000	300	—	—
로즈(가격)		300	400	300	500	1,300	1,800	2,000	3,000	1,000	1,300	500	—	—
백색(지수)		0.39	0.68	0.39	0.44	1.26	1.74	1.45	2.42	0.97	0.97	0.29	—	11.00
청곡(지수)		0.67	0.38	0.30	0.43	1.25	1.73	1.63	2.39	0.96	0.96	0.30	—	11.00
로즈(지수)		0.28	0.35	0.28	0.44	1.15	1.60	1.77	2.65	0.89	1.15	0.44	—	11.00

註: 남대문대도꽃시장 상품기준 도매시세이며 매월 중순의 가격임.
6月資料는 확보불능이어서 指數의 計는 11.00임.

資料: 화훼 협회 「화훼 통신」 및 「화훼 협회보」 1980. 9~1981. 7. 2의 가격資料를 利用하여 작성.

生産者의 輸送手段은 보통 용달차 또는 트럭이며, 地方小賣商들이 서울에서 切花를 구입해 갈 때는 高速버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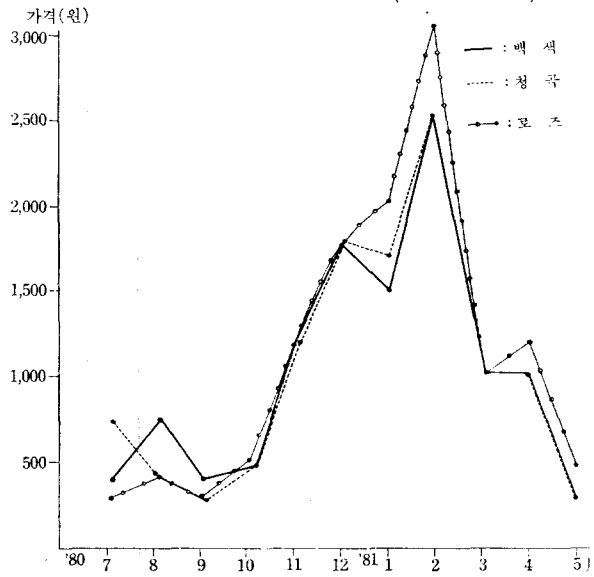
5. 價 格

花卉의 價格은 品目에 따라 千差萬別이며, 같은 품목이라도 品種과 等級에 따라 다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菊花의 경우에서만도 15개 품종의 價格이 모두 다르며 다시 品質의 上中下에 따라 差異가 난다. 價格의 決定은 都賣나 小賣에 있어서 販賣者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적당히 利潤을 붙이거나 割引을 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市場에서 동일한 品質이라도 價格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花卉의 價格은 時期別로 變動幅이 매우 크다. 연중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카네이션 3품종의 月別 價格을 조사해서 表로 작성하고 <表 7>, 視覺的인 理解를 돕기 위하여 다시 그래프를 作成하였다<그림 2>. 5월~10월까지의 非需要期에는 價格이 현저히 낮으며 12월~2월까지의 盛需期에는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로즈의 경우 最高價는 最低價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대체로 다른 花卉類도 대부분 價格의 變動이 심하고 불안정하다.

그림 2 花卉價格의 季節變動 趨勢

(1980. 7~1981. 6)



註: 表 7을 利用하여 작성

6. 貿 易

花卉의 貿易量은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1981년 기준 輸出은 2.6백만 달러, 輸入은 2.1백만 달러 수준이며 貿易 相對國은 10여 개 정도이다.

花卉의 輸出 大宗品目은 切花, 切葉인데 近年에 들어와서 輸出이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다 <表 8>. 한편 輸入은 球根, 種子, 觀葉植物, 苗木類 등이 대부분으로서 輸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品種改良과 우수한 品質의 花卉生産을 위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1981년 7월의 花卉

表 8 花 卉 의 貿 易 現 況

단위 : 千달러

年度別 類別輸	輸 入					輸 出				
	1977	1978	1979	1980	1981	1977	1978	1979	1980	1981
切花, 切葉	924	2,977	1,968	2,622	2,549	11	15	217	123	97
球根類	7	—	—	—	—	10	9	143	318	347
種子	8	18	11	23	45	32	94	175	254	278
其他	123	251	173	191	55	28	25	150	428	1,398
計	1,062	3,246	2,152	2,836	2,649	81	143	685	1,123	2,120

資料 : 農水産部, 「花卉便覽」, 1982.

表 9 花 卉 의 對 象 國 別 貿 易 現 況, 1981

단위 : 달러

國 別	類 別	輸 入				輸 出	
		切花·切葉	種子	球根類	其他	計	計
수	일본	2,511,492	28,291	—	26,596	2,566,379	
	화란	3,063	—	—	24,000	27,063	
	싱가	4,250	—	—	4,194	8,444	
	사우	18,634	—	—	—	18,634	
	서독	11,902	—	—	—	11,902	
출	미국	—	16,546	—	—	16,546	
	계	2,549,341	44,837	0	54,790	2,648,968	
수	일본	27,965	264,500	183,325	861,842	1,337,632	
	대만	16,261	—	7,513	16,203	39,977	
	화란	6,584	2,528	143,153	205,286	357,551	
	미국	8,217	1,965	13,401	229,423	253,006	
	브라질	29,484	—	—	—	29,484	
	홍콩	—	—	—	30,789	30,789	
	인도네시아	7,905	—	—	39,271	47,176	
	서독	—	5,362	—	—	5,362	
	뉴질랜드	—	3,788	—	—	3,788	
	호주	—	—	—	6,187	6,187	
입	인도	—	—	—	9,165	9,165	
	계	96,416	278,143	347,392	1,398,166	2,120,117	

類 全品目的 輸入自動承認化에 따라 輸入이 促進되었기 때문에 보인다. 전반적으로 1981년 현재 花卉의 貿易收支는 出超이나 球根, 種子, 苗木, 및 기타에서 모두 入超이다. 특히 球根類는 輸出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切花와 切葉에서 압도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對象國別 花卉의 貿易現況을 보면 輸出에 있어서는 日本이, 輸入에 있어서는 日本, 化란, 美國이 주요 去來國들이었다(表 9). 品目別 輸出에 있어서는 日本, 사우디, 西獨에 切花와 切葉이 수출되고, 種子是 日本과 美國 그리고 기타

觀葉植物 및 苗木類는 日本, 化란으로 輸出되었다. 品目別 輸入對象國을 보면 切花, 切葉은 브라질, 日本, 대만, 種子是 日本, 球根類는 日本과 化란 그리고 觀葉植物 및 苗木은 주로 日本, 化란, 美國 등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花卉의 貿易은 아직 많지 않으며 去來는 輸送 거리가 가까운 日本을 주로 상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球根類와 苗木類는 花卉의 改良을 위해서 세계적인 花卉 生産國인 化란에서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다.

Ⅲ. 花卉農業의 問題點

花卉農業의 발전을 제약하는 당면 問題點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生産, 需要, 流通, 政策, 制度的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生産基盤의 脆弱이다. 生産農家의 經營規模가 영세하여 生産 및 施設에 대한 資本投下가 빈약하다. 技術 면에 있어서 生産農民의 전반적인 敎育 수준은 낮지 않으나 花卉園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우기 經營狀態가 소극적인 副業農家가 많아 技術의 進歩가 매우 완만하다. 이는 生産農家의 약 70%가 2단보 이하를 재배하며 農家의 50%가 副業栽培를 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영세한 農家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市場情報 入手가 늦고 技術情報 交換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生産者間의 경쟁심 촉발이 미약하다.

種苗에 있어서는 球根類, 宿根類의 罹病率이 높으며 優良種子, 種苗의 生産供給體系가 미비한 상태에 있다. 또한 花卉栽培에 필요한 발달된 作業機器, 施設財, 특수비료, 農藥, 성장촉진제 등 花卉生産支援 分野의 태세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둘째, 花卉流通 구조의 不合理와 流通施設의 불비이다. 生産者와 都賣商 사이의 去來는 주로 委託販賣에 의존하고 있는데 去來當事者間의 相互不信으로 生産者의 生産意慾이 低下되고 있으며 價格形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거래, 운송, 저장 등과 관련된 流通施設이 불비되어 있어 新鮮度 維持期間의 단축, 減耗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等級化, 規格

化的 미비는 價格의 不安定을 가중시켜 生産農家의 안정을 저해하고 需要의 底邊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花卉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결여이다. 花卉란 富裕層이나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치스러운 것이라거나 慶弔事나 특별한 행사 또는 官公署나 營業場所 등에나 사용되는 것이라는 등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다. 물론 社會 일각에서 高價의 觀賞樹나 蘭, 또는 호화스러운 花環 등을 富의 誇示로서 유지 또는 사용하고 있으나 花卉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우이다. 花卉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生命을 가꿈으로써 人間情緒의 涵養을 가져오는 대상이며 生活空間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人間生活을 풍부하게 하는 말 없는 生命體이다. 따라서 花卉는 매마른 現代 產業社會에서 일반 대중의 日常生活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사치품으로서 어느 特殊層에 국한된 專有物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花卉에 대한 인식의 잘못이 花卉需要 확대를 제약하는 것과 함께 일반 소비자의 꽃 가꾸는 常識的 技術知識이나 꽃꽂이, 병꽂이 등과 같은 장식법의 知識 결여 또한 花卉需要 증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政府의 政策의 支援態勢 미흡이다. 政府에서는 근년에 들어서 花卉農業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農水產部에서도 花卉農業育成方案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農安法에 花卉를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花卉와 관련된 공식적이고도 정확한 統計資料의 蒐集確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生産資金 및 流通關聯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직 거의 없으며 生産農가에

대한 栽培技術 지원, 改良品 보급 등이 미흡하다. 花卉農業을 자발적으로 이끌고 갈 花卉民間團體의 육성도 당분간은 政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花卉農業의 발전과 輸出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技術導入, 優良種子와 種苗의 輸入에 있어 政府의 조인, 花卉의 輸出競爭力 확보를 위한 輸出金融의 확충 등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儀禮準則에서 花卉使用 억제를 강화함으로써 花卉의 生産과 需要를 다같이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制度的 뒷받침이 미약하다. 農地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에 있어서는 花卉類의 農地利用을 제한하고 있다. 絶對農地에서는 食糧作物 이외에는 심지 못하며 相對農地에서도 固定施設을 제한하고 있으며, 多年生 植物은 15도 이상의 경사에 심도록 규정하고 있다. 稅制면에 있어서 乙類農地稅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生産農家나 花卉業界의 일치된 견해이다. 보통 總 生産額에 대하여 40%를 認定課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 한편 花卉技術의 연구 및 보급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農村振興廳 園藝試驗場 산하에는 모두 6명의 研究人力이 있을 뿐으로 日本의 183명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農村振興廳 산하의 農村指導所에는 花卉栽培技術을 지도할 수 있는 人力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다. 한편 花卉類 品目別 所管部處가 相異하여 花卉農業政策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 예컨대 觀賞樹는 山林廳 擔當業務이며, 잔디 種子 輸出檢査는 林業試驗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등이다.

花卉의 貿易 면에 있어서는 花卉의 全品目이 1981년 7월 이후 自動承認品目으로 되어 花卉完製品의 대량수입으로 인한 生産農家の 生産意慾

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편 球根類 및 苗木類 등 輸出을 위한 母本導入에 있어서는 關稅率이 20%에 달하고 있어 輸出價格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IV. 花卉農業의 育成方案

花卉農業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良質의 花卉가 저렴한 費用으로 원활하게 生産될 수 있어야 하고, 生産된 花卉는 능률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유통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花卉의 國內需要가 대폭 신장되고 海外輸出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花卉農業이 당면한 問題를 조속히 해결하고 花卉農業 발전 促進方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花卉農業 育成方案을 제시한다.

첫째, 地域別 生産團地 조성이다. 전국 각지의 花卉生育 條件을 정밀 조사하여 類別, 品目別 栽培適地를 선정, 生産團地化한다. 團地選定에 있어서는 平野, 山間, 海岸, 島嶼 등 다양한 地域的 特殊性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品目 育成은 수출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自生種을 集中開發하고 아울러 개량된 導入品種도 적극 보급하여 육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정된 團地에는 生産 및 施設資金의 優先支援, 農村振興廳의 指導系統을 통한 새로운 經營 및 技術의 普及指導가 뒤따라야 한다. 生産의 團地化는 生産의 專門性 유도, 새로운 技術의 보급 및 交流의 원활, 生産者間의 競争心 觸發을 통한 生産性 向上, 政府의 技術的 支援 容易, 資金과 種苗, 種子支援에 따른 事後감독의 容易, 觀光地로서의 發展圖謀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³ 韓國花卉協會, 「花卉協會報」, 1982. 3.

둘째, 優良種子, 種苗 生産普及體制 확립이다. 花卉生産에 있어서 技術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優良種자와 種苗의 사용이다. 열악한 種子에서 우수한 花卉의 生産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優良種자의 適期確保 供給을 위해서는 政府에서 능력 있는 種苗會社를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農村振興廳에서 改良生産하고 農協系統組織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外國의 優秀品種의 導入供給, 輸出用 花卉母本の 輸入供給, 좋은 生産機資材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花卉園藝技術 支援態勢 확립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果樹園藝나 菜蔬園藝에 관한 관심과 技術的 研究는 많았으나 花卉에 대한 研究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學校나 政府研究機關의 관심도 비교적 소홀했고 民間團體의 연구도 미미했다. 현재 政府機關의 專門研究人力이라야 農村振興廳 산하에 고작 6명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研究人力으로 花卉農業의 전반적인 技術的 發展을 기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農村振興廳의 研究人力 보강, 學界의 花卉研究活動 촉진을 위한 研究費 지원, 種苗會社에 研究試驗所 설립 적극 권장 및 資金支援, 優秀花卉農家に 대한 포상 實施 등이 요청된다. 또한 農村指導所 職員들에 대한 花卉園藝教育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對生産者 技術指導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花卉流通 구조의 改善이다. 좋은 種苗와 좋은 技術로 생산된 優良花卉는 소비자까지 합리적이고도 원활하게 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現流通體系上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개선되어야 하나 本稿에서는 紙面的 制限關係로 세부적인 論議는 곤란

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生産者와 消費地 都賣商 사이의 去來關係인 現委託販賣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委託販賣制는 荷主와 委託商 사이에 相互信賴에 의한 정직하고 성실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이상적인 去來方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委託販賣制는 去來當事者間에 販賣價格 및 販賣量의 眞實性和 관련하여 不信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 주로 피해자인 生産者의 生産意慾을 크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은 委託販賣制가 계속되는 한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代案으로 競賣制의 실시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花卉消費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競賣制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건설 중인 可樂洞 農產物綜合都賣市場에 입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等級化 및 規格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輸送手段 및 포장의 改善, 효율적인 流通情報體系의 확립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花卉消費 底邊擴大를 위한 畚造成이다. 花卉需要의 증가 없이 花卉農業의 發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花卉需要의 增加는 短命으로 끝나기 쉬운 業所를 대상으로 한 半強制的인 권유 方法보다는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方法으로 荷蘭의 콰켄호프(Keukenhof)와 같은 대규모 花卉公園을 각 道別로 조성하고 매년 적당한 시기에 꽃祝祭나 街頭行列 실시, 정기적인 優秀花卉 競進大會 개최, 꽃가꾸기 및 꽃장식 講習會의 확대, 花卉를 사치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社會認識 改進黨을 위해 매스컴을 이용한 弘報

強化,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한 花卉의 불 造成 등을 통하여 花卉의 大衆浸透를 촉진하고 花卉의 日常生活에의 정착을 기하도록 한다. 또한 企業體, 官公署, 學校 등에서도 화 단가구기, 화분 가구기 運動 등을 전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여섯째, 輸出擴大의 적극적 推進이다. 輸出擴大를 위해서는 民間 또는 政府次元에서 海外市場情報 蒐集分析體制를 확립하고 輸出戰略品目을 집중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海外 花卉農業 先進國과 團體別 또는 地域別 자매결연을 통하여 技術과 情報交換을 촉진한다.

한편 輸出母本導入에 있어서는 免稅 또는 輸出時 關稅還給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花卉生産農家の 生産意慾을 저하시키고 있는 현행 花卉의 全品目 自動承認 輸入制度를 國內花卉農業의 보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制限承認과 自動承認을 品目별로 조정,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政策的 支援機能 강화이다. 우리 나라 花卉農業은 아직 幼兒期에 있기 때문에 政府의 적극적인 政策的 지원 없이는 成長發展이 지남하다. 그런데 현재 政府의 政策的 支援態勢는 미흡한 실정으로 무엇보다도 花卉育成 政策的 樹立執行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政府 關聯機關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花卉擔當業務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試驗研究 分野에 대한 과감한 投資, 生産 및 流通의 원활을 위한 施設 및 資金支援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問題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花卉農業이 장차 자발적으로 成長發展할 수 있도록 花卉 관련 民間團體를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花卉에 관련된 統計資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蒐集確保가 절실히 필요하다. 좋은 統計資料는 좋은 政策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花卉農業은 氣候條件이 적합하고 品目別 栽培適地가 많으며 農民의 教育 水準이 높아 生産量의 확대와 技術의 발전이 용이하다. 需要 면에 있어서는 國民所得의 증가, 生活樣式의 변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개최 등으로 대폭적인 需要增加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政府의 花卉農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花卉業界는 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花卉農業을 둘러싼 經濟的, 社會的인 諸與件이 성숙되어 있으므로 當面問題의 적절한 解決과 花卉農業育成을 위한 합리적인 뒷받침만 이루어진다면 花卉農業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參 考 文 獻

- 韓國花卉協會, 「花卉通信」, 1980. 9~1981. 3.
- , 「花卉協會報」, 1981. 5~1983. 3.
- 農水產部, 「花卉便覽」, 1982.
- 農漁村開發公社, 「花卉流通資料便覽」, 1983. 1.
- 韓國園藝發達史 編纂委員會, 「韓國園藝發達史」, 1980.
- 一中堂, 「園藝大百科」, 1977.